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8-21호
 2018년 11월 21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 택배 유형별 업무량 및 매출규모 비율(%)

유형	업무량	매출규모
타지역 택배 (异地快递)	74.8	50.7
도시내 택배 (同城快递)	23.1	14.8
국제택배	2.1	10.7

주 : 매출규모의 23.8%는 기타 유형
 자료 : 중국 국가우정국, 「2017年邮政业运行情况」

■ 2017년 중국 도시별 택배 업무량 (억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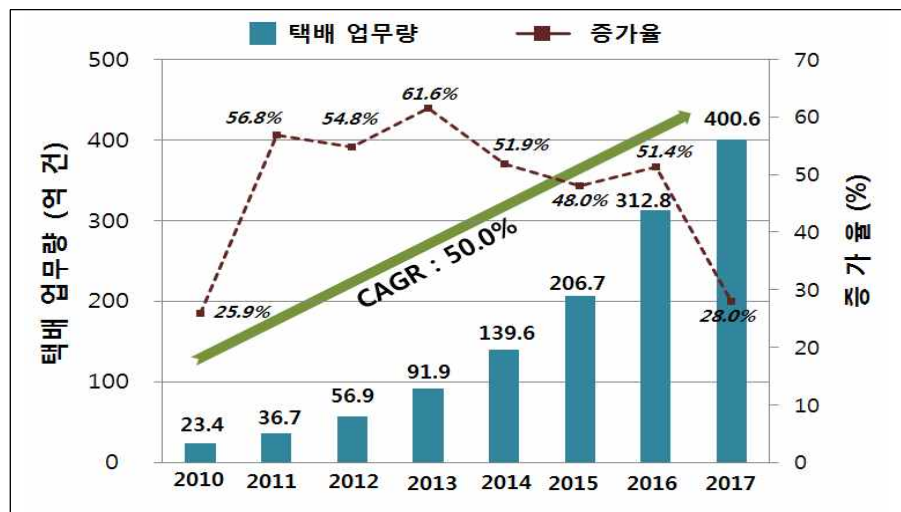
	지역	택배 업무량
1	광저우시	39.3
2	상하이시	31.2
3	선전시	26.0
4	진화시(이우)	25.5
5	항저우시	23.3
6	베이징시	22.7
7	둥관(东莞)시	12.2
8	쑤저우시	10.4
9	청두시	8.3
10	취안저우시	7.4
	합계	206.3

자료 : 상통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자료 : 중국 국가우정국(<http://www.spb.gov.cn/>), 「邮政业运行情况」, 각 호 공보

2017년 중국 택배 업무량 400억 건 돌파, 증가율은 크게 둔화

2017년 중국 택배기업들의 택배 업무량은 사상 최초로 400억 건을 돌파한 400억 6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28.0% 증가했지만, 2016년의 51.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2017년 택배업의 업무수익은 4,957억 천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했으나, 이 역시 2016년의 43.5%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택배 유형별로는 타 지역 택배 업무량이 전체의 74.8%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내 택배 23.1%, 국제택배(홍콩·마카오·대만 포함) 2.1%의 순이었다. 중국 도시별 택배 업무량을 살펴보면, 광저우가 39억 3천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이가 31억 2천만 건, 선전이 26억 건으로 1~3위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2016년 6위였던 진화시(이우)의 택배량이 크게 증가하며 4위를 차지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국무원의 「택배잠행조례(快递暂行条例)」는 택배기업의 통일적인 상표 사용, 손해배상 규칙의 세분화,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택배시장의 제도화를 촉진시켰으며, 국가 우정국 등 관련 부처는 2020년까지 친환경 포장재료 의무사용 비중을 50% 제고시키는 등 녹색 발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싱글데이(11월 11일)'로 인해 택배량이 가장 많은 11월 택배량은 약 60억 건에 달해 2012년 한 해 택배량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전체 택배 업무량은 500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¹⁾.

1) 刘江, "2018双11增量不减质量", 「物流时代」 533期, 2018. 10.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5	11~16
종합지수	773.28	866.58
일본 항로	678.52	711.22
구주 항로	1,055.59	1,030.66
미서부 항로	612.18	849.91
미동부 항로	783.03	1,017.15
한국 항로	614.11	597.05

주 : '01-05' 2018년 1월 5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5	11~16
종합지수	1,387.18	1,151.11
석탄	1,441.08	1,196.40
곡물	1,464.37	1,139.79
금속광석	1,521.19	1,122.79
정유	1,521.19	1,280.19
원유	1,541.72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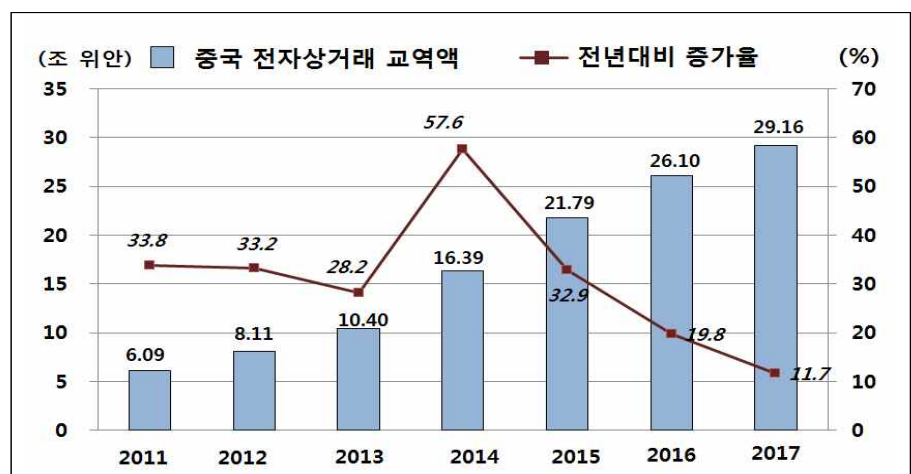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온라인 쇼핑 수출국(해외 직접판매)이다. 2018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 8,914억 원 중에서 중국으로의 직접 판매는 7,245억 원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입(해외 직접구매)액 6,956억 원 중 중국(전체의 17.7%)은 미국(52.8%), EU(20.1%)에 이어 3위의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4.1%나 증가했다²⁾. 이렇게 한·중 간 국제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확장 및 물류기업의 진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29조 1,600억 위안으로서 2011년에 비해 4.8배 성장했다(그림 1 참조). 특히 전자상거래 중에서 온라인 쇼핑(B2C, C2C) 거래가 전년대비 32.2% 증가한 7조 1,800억 위안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58.4%를 차지하고 있는 B2C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Tmall.COM(天猫)이 시장의 57%를 점유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JD.COM이 25.5%로 상기 2개 쇼핑몰이 전체 B2C 시장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³⁾.

[그림 1]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 2018.5.,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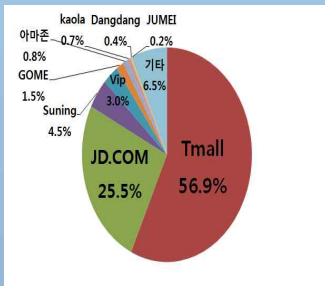
2) 통계청, 『2018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2018. 11., pp.16~22.

3)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 2018. 5., pp.2~20.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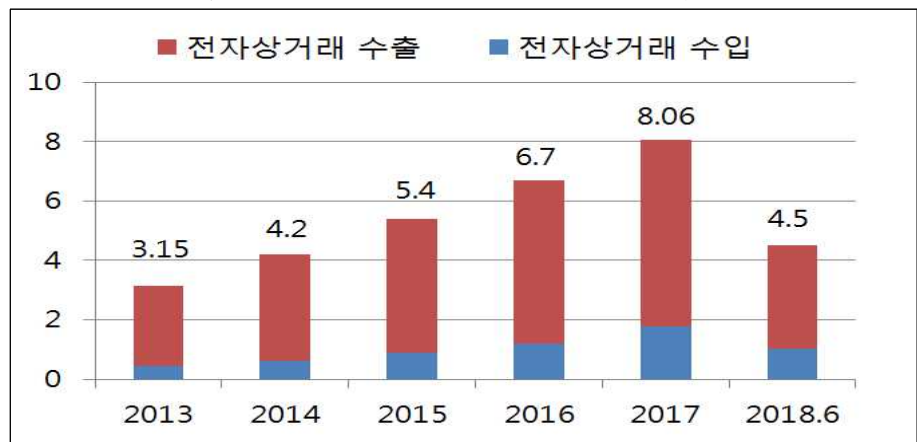
■ 2017년 중국 B2C 시장 점유율(%)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 2018.5.

특히 세계적으로 '해외직구' 등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电子商务研究中心)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8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동기대비 25% 증가한 4조 5천억 위안을 기록했다(그림 2 참조). 2017년 기준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전체 국제전자상거래에서 85.7%에 이르던 수출 비중은 2017년 77.1%까지 낮아졌으며, 대신 수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B2B 거래의 비중이 85.2%로 여전히 높으나 그 비율은 2013년 94.8%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반면 B2C 거래의 비중이 2013년 5.2%에서 2017년 14.8%로 제고되었다⁴⁾.

[그림 2]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및 수출입 비중



자료 : 전자상거래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100ec.cn/detail-6471917.html>)

온라인 쇼핑의 경우 중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2017년 기준 일본, 미국, 한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홍콩 등의 순이었으며, 수출 대상국은 홍콩, 미국, 러시아,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캐나다, 에스토니아 등의 순이었다. 또한 중국 성·시별로 보았을 때 온라인 쇼핑 수출 상위 5개 지역은 광둥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허난성이었으며, 수입이 많은 5개 지역은 광둥, 저장성, 허난성, 상하이시, 충칭시였다⁵⁾.

2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변화

1) 중국의 주요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중국 국무원은 2013년부터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출 관련 정책의견에 관한 통지(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통한 경제 신동력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 『국제전자상거래 건강쾌속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

4) 전자상거래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100ec.cn/detail-6471917.html>)

5) 중국 상무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 2018. 5., pp.53~54.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进跨境电商健康快速发展的指导意见)』 등을 발표하며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물 수출 시 세관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增值稅)와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수출을 장려했으며, 세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전산망으로 세관과 연결된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교역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24시간 내 세관 수속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했다⁶⁾.

중국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육성하는 한편으로 시장의 제도화·규범화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직구상품과 일반 무역상품 간에 벌어지는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2016년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를 발표하며 해외 직구상품에도 일반 통관 수입품처럼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행우세⁷⁾’ 50%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다⁸⁾. 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최초의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및 영향

2013년 입안된 『전자상거래법』이 5년 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2018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개인 온라인쇼핑몰 개설도 공상 등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입이 크게 까다로워지게 된다⁹⁾.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9~12조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까지 포함시키며 이러한 경영자들의 시장주체 등기 및 납세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는 현재 개인 간 거래(C2C)의 주요 주체인 웨이신(微信) 판매업자나 방송판매자 등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중국 창안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웨이신 판매업자나 방송판매자들이 C2C 거래를 통해 미납 혹은 적게 납부한 세금 규모는 2016년 최대 747억 9,200만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에는 1,000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개인 경영인의 타격은 클 수 있다¹⁰⁾.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 시사점”, 2016. 6.
7) 행우세(行郵稅)는 여행객의 수화물과 개인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8) 하지만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위축 및 업계의 반발로 인해 주요 지역에서는 정책 실시를 유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 유예 적용 지역을 확대함. 조선일보, “중국, 해외직구 과세 유예조치 새해에도 연장”(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0143.html)

9) KOTRA,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가져올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081)

10) 搜狐, “从《电商法》看对快递行业影响”(http://www.sohu.com/a/251499304_619361)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성·시	시범구	승인 시기
저장성	항저우	'15.3.
	닝보	'16.1
	이우	'18.7.
허난성	정저우	'16.1.
톈진시	톈진	'16.1.
상하이시	상하이	'16.1.
충칭시	충칭	'16.1.
안후이성	허페이	'16.1.
광둥성	광저우	'16.1.
	선전	'16.1.
	주하이	'18.7.
	둥관	'18.7.
쓰촨성	청두	'16.1.
랴오닝성	다롄	'16.1.
	선양	'18.7.
산둥성	칭다오	'16.1.
	웨이하이	'18.7.
장쑤성	쑤저우	'16.1.
	난징	'18.7.
	우시	'18.7.
베이징시	베이징	'18.7.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18.7.
지린성	창춘	'18.7.
헤이룽장	하얼빈	'18.7.
장시성	난창	'18.7.
후베이성	우한	'18.7.
후난성	창샤	'18.7.
광시자치구	난닝	'18.7.
하이난성	하이커우	'18.7.
꾸이저우성	꾸이양	'18.7.
윈난성	쿤밍	'18.7.
샨시성	시안	'18.7.
간수성	란저우	'18.7.
푸젠성	샤먼	'18.7.
허베이성	탕산	'18.7.

자료 : 바이두백과 검색.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면세업계를 중심으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C2C 개인 경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상당 부분이 정식 수입·유통 채널이 아닌 '파이공(보따리상)'들이 면세점 등지에서 구매하여 개인 수화물로 들여와 유통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이며, 현재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가 이 '파이공'에 의한 매출로 추정된다¹¹⁾.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으로 유통 채널이 양성화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수요가 하락된다고 까지 예상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볼 때, '파이공'에 의한 음성적인 유통채널이 줄어들다면 오히려 국제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정식적인 유통채널을 가진 기업 및 국제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는 물류기업에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국제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현황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육성 정책 중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이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은 크게 중국 해관총서가 지정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跨境电商试点城市)'와 국무원이 지정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跨境电商综合试验区)'가 있다. 먼저 '시범도시'의 경우 2012년 12월 충칭, 상하이, 닝보, 항저우, 정저우의 5개 도시에서 시작되어 현재 총 24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이 '시범도시'는 전자상거래 수출 시범실시 자격을 가진 지역과 수입 시범실시 자격을 가진 도시로 구분되는데 수출 자격만 갖춘 도시가 더욱 많으며, 두 가지 자격을 갖춘 도시는 10개 도시에 불과하다¹²⁾.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세수입 업무는 수입자격을 갖춘 시범도시 내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보세물류센터에서만 가능하다¹³⁾.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는 '시범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3월, 국무원에서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을 승인했으며, 2016년 1월, 톈진 등 12개 도시, 다시 2018년 7월에는 베이징, 후허하오터 등 22개 도시를 다시 추가 지정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종합시범구는 총 35개로 확대되었다. 종합시범구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교역, 지불, 물류, 통관 등 다양한 관련분야의 개혁조치들이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완비된 국제전자상거래 산업사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중국 재정부 등이 발표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온라인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跨境电商综合试验区零售出口货物税收政策的通知)』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입주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다¹⁵⁾.

11) 머니투데이, "내년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파이공 줄어드나...면세업계 '긴장'"(<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809423543782>)

12) 10개 도시는 충칭, 상하이, 닝보, 항저우, 정저우, 광저우, 선전, 톈진, 청두, 다롄임.

13) 전자상거래연구센터 『2017 年度中国跨境电商政策研究报告』, 2018. 3., pp13~15.

14) 바이두백과 검색(baike.baidu.com), 검색어 : 中国跨境电商电子商务综合试验区

15) 중국 재정부 등, 『关于跨境电商综合试验区零售出口货物税收政策的通知』, 2018. 9. 2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3 '일대일로' 전략과 '온라인 실크로드' 구축

1) '온라인 실크로드' 전략

2013년 9월,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순방 시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를 제시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탄생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71개 국 대상) 간 수출입은 1조 4,403.2억 달러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으며([표 1] 참조), 이는 중국 전체 수출입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80여 개 이상의 경제협력구를 건설했고, 현지에서 총 24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2018년 6월 기준 7개 국가와는 인민폐 결산을 실현했으며 11개의 중국 은행이 27개국에 진출해 있다¹⁶⁾.

[표 1] 2013~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무역액(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수출액	6,980.0	7,737.4	7,520.8	7,134.2	7,742.6	2.6%
수입액	7,123.1	7,288.9	6,007.2	5,561.6	6,660.5	-1.7%
합계	14,103.1	15,026.3	13,528.0	12,695.8	14,403.1	0.5%

자료 : 중국 국가정보센터 '일대일로' 빅데이터중심, 『'일대일로' 빅데이터 보고(2018)』, 2018. 5., p.177.

이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점 대외전략으로서 중국 자본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간 물류 인프라 건설도 촉진되어 연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물리적인' 연계성 외에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과 '온라인' 세계를 연계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13·5' 국가정보화 계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에서 '온라인 실크로드(网上丝绸之路)'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고, '온라인 실크로드'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온라인 연계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경제벨트' 구축을 의미한다.

이어서 당해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발전 3년 행동계획(2016~2018)(促进电子商务发展三年行动实施方案[2016~2018年])』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요 거점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채널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듬해 1월 발표한 『이동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移动互联网健康有序发展的意见)』에서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온라인 실크로드' 국제협력 추진 및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이렇듯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의 채널,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창구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¹⁸⁾.

16)央视网, "一带一路五年成就辉煌"(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8/17/c_1123287186.htm)

17) 알리바바연구원(www.aliresearch.com), 『eWTP助力"一带一路"建设』, 2017. 4., p.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국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2017년 중국 상무부는 7개의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양자 간 전자상거래 협력각서를 체결했으며 산업 간 연계, 인력 교육, 공동 연구 등 부문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표 2] 2017년 중국 상무부와 체결한 전자상거래 관련 양자 협력각서

일시	대상 국가	체결 문서
5월 11일	베트남	중국 상무부와 베트남 공업무역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9월 1일	브라질	중국 상무부와 브라질 공업무역 및 서비스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9월 15일	호주	중국 상무부와 호주 외교무역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11월 10일	캄보디아	중국 상무부와 캄보디아 공업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11월 12일	베트남	중국 상무부와 베트남 공업무역부의 전자상거래 협력 업무조직 설립에 관한 양해비망록
11월 27일	에스토니아	중국 상무부와 에스토니아 경제사무 및 통신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11월 28일	헝가리	중국 상무부와 헝가리 외교대외경제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 2018. 5., p.58.

2) '일대일로'와 알리바바그룹의 eWTP 전략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이미 2016년 3월, 전자세계 무역플랫폼(eWTP, 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전략을 주창하며,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3월 알리바바그룹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공항에 첫 번째 'eWTP 시범구'를 설립하고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물류, 보관, 통관, 무역, 금융이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10월 eWTP 시범구에서는 첫 번째 중소기업 수출 주문이 나왔다. 알리바바 그룹은 eWTP 전략과 연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Enabling E-commerce'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⁸⁾. 또한 알리바바그룹은 2016년 '일대일로' 65개 연선국가들과의 국제전자상거래(소매거래만 포함) 연계성 정도를 지수화 시킨 ECI (E-Commerce Connectivity Index) 지수를 발표했는데, 러시아가 1위에 꼽혔다. 동 지수는 수출지수와 수입지수로 나뉘는데, 수출지수는 대상국 중국 상품 구매가 많을 시, 수입지수는 중국 소비자가 해당국 상품 구매가 많을 시 높으며, 두 지수의 합이 종합지수가 된다.

65개 국가 중 수입지수가 수출지수보다 높은 국가는 태국이 유일했다(그림 3) 참조. 2016년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주요 소매 거래품은 휴대폰 및

18) 최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제71조에서도 “국가는 소형초소형 기업이 국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한다(国家支持小型微型企业从事跨境电子商务)”고 명문화하며 중소기업들의 국제전자상거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19) 알리바바연구원, 『알리바바 중소기업 국제무역 발전보고』, 2018., pp.6-7.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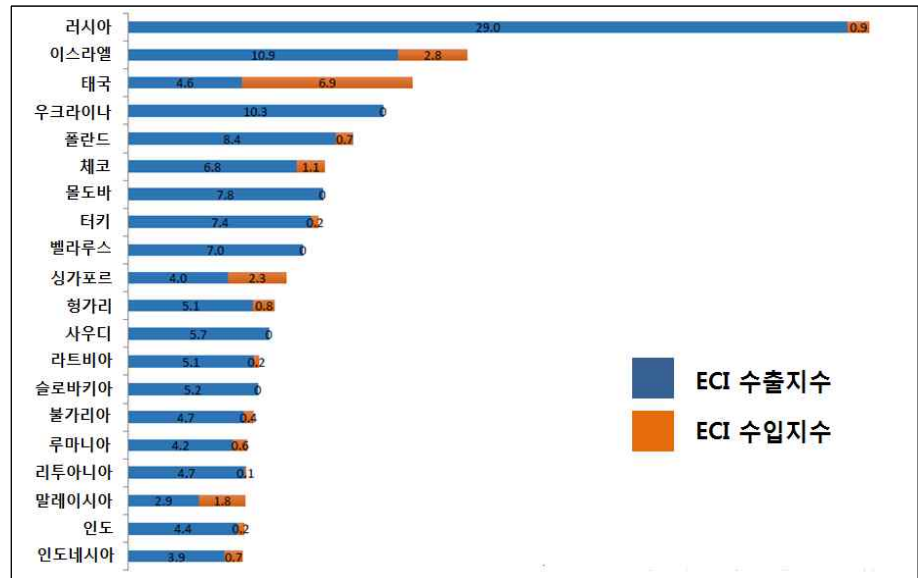
■ 중국과 ECI 지수 상위 3개국의 주요 거래 제품

국가	주요 거래 제품
러시아	휴대폰 및 부속품, 의류 및 약세서리, 전자제품, 홈가드닝 제품, 미용·건강 제품
이스라엘	개인위생용품, 디지털가전, 가구인테리어제품, 유아용품, 뷰티·화장품
태국	가구용품, 뷰티·화장품, 식품, 영양보조제

자료 : 알리바바연구원

부속품, 패션보석류, 여성의류, 의류·약세서리, 네일 용품 등의 순 이었다²⁰⁾. 아울러, 알리바바그룹은 물류자회사인 차이나오로 하여금 국내외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국가 스마트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24시간 배송을 국외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72시간 배송을 목표로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서고 있다²¹⁾

[그림 3] 알리바바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ECI 지수 상위 20개 국가



자료 : 알리바바연구원, 『eWTP助力“一带一路”建设』, 2017. 4., p.9.

3) 해외 전자상거래 거점 '해외창고' 구축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물류시장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 배송 방식은 크게 우체국 EMS를 통한 방식, DHL, UPS, Fedex와 같은 글로벌 택배사 혹은 순펑, 웬통과 같은 중국 현지 대형 택배사를 통하는 방식, 물류회사들이 항공운송을 통해 목적지 국가로 배송한 후 해당 국가의 파트너사가 고객에게 다시 배송하는 방식 및 해외에 '해외창고(海外倉)'라 지칭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통한 방식 등이 있다²²⁾. 그중 '해외창고'는 중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다수의 수출상품 ‘해외창고’ 건설을 지지한다”고 언급되기도 했다²³⁾.

‘해외창고’는 국제전자상거래의 판매자가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대상국의 창고로 수출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면, 창고에서 바로 해당국의 소비자에서 배송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일반적

20) 알리바바연구원 『eWTP助力“一带一路”建设』, 2017. 4., p.5.

21) 차이나오 홈페이지(<https://www.cainiao.com>)

22) 陈炳辉, 「基于SWOT 分析的“一带一路”经济区域跨境电商物流模式研究」, 『物流技术』 36(2),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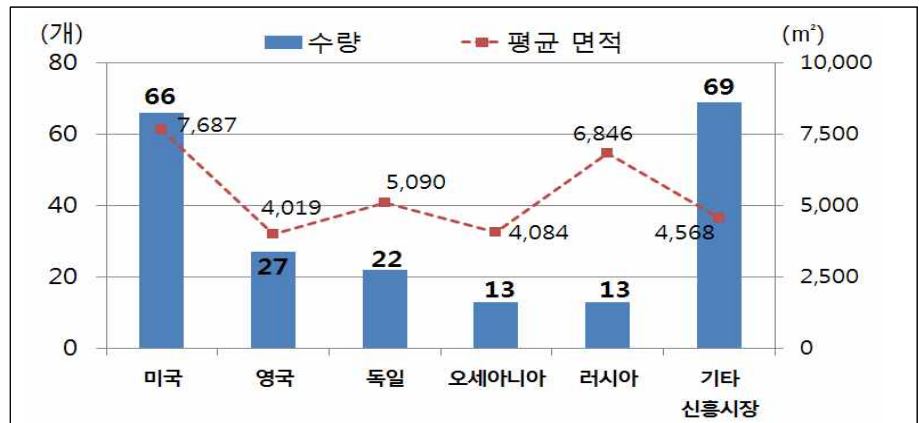
23) 중국 국무원, 『2016년 정부공작보고』, 2016. 3. 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인 물품의 보관 역할만 하는 단계에서 현재는 판매상과 소비자, 온라인 쇼핑물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까지 총괄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²⁴⁾. '해외창고'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창고와 제3자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창고로 나뉘 수 있는데, 2016년 말 기준으로 제3자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창고는 210개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국이 66개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면적도 7,687㎡로 가장 넓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제3자 물류방식의 '해외창고(海外仓)' 분포 및 면적(2016년 말 기준)



자료 : 易仓科技, “关于海外仓, 这可能是迄今为止最全面的调研报告”(http://www.sofreight.com/news_14065.html)

4 중국 물류기업의 국제전자상거래 활용 사례

1) 항공과 철로를 통한 글로벌 배송 네트워크 확장 : 순펑, 웬통택배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제택배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주요 택배기업들도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분주하다. 그중 중국 최대의 민영 택배기업인 순펑택배(SF Express)가 독보적이다. 순펑택배는 중국 민영 택배사 중 최초로 자체 화물기를 도입한 기업이다. 2009년 순펑택배는 자회사인 순펑항공(SF Airlines)을 설립하여 자체 화물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7년 기준 57대 화물 전용기(41대 자체 항공기)를 보유하고 중국 주요 도시 및 홍콩·대만·마카오, 일본 등과 연결되는 57개 항로를 운영 중에 있다. 세계 53개 국가에 283개의 영업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여 한·중 특송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한국 수출화물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까지 Door-to-Door로 영업일 2일안(Standard Express 기준)에 배송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등 15개 국가에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⁵⁾. 웬통택배도 순펑택배에 이어 2014년 항공 자회사인 웬통항공을 설립하고 자체적인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24)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센터는 아마존의 FBA(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아마존은 현재 세계에 180여 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CLO, “물류로 돈번다는 아마존 ‘풀필먼트로 본 규모의 경제’”(http://www.clomag.co.kr/article/3142)

25) 순펑택배 홈페이지(www.sf-express.com) 및 『2017 Annual Report』, 201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했다. 2018년 현재 웬통택배는 12대의 자체 화물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3·5'계획 말까지는 27대의 전용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웬통택배는 이미 홍콩,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방글라데시 다카, 도쿄 등에 노선을 운행 중이다²⁶⁾.

양사는 열차를 이용한 전용노선 운행에도 적극적이다. 순펑택배는 장시성 간저우(赣州)항에서 핀란드 및 모스크바로 운행되는 블록트레인 운영을 개시했으며, 웬통택배도 2018년 8월 중국 저장성 이우(义乌)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운행하는 국제화물열차가 운영을 개시하였다²⁷⁾.

2) 국제전자상거래 전문 물류기업 : 4PX Express

4PX Express(递四方速递)는 2004년 선전에서 설립된 중국 최대의 국제전자상거래 전문 물류기업이다. 민영기업이지만, 국영 투자기업인 선전캐피털그룹(Shenzhen Capital Group) 및 싱가포르포스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투자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에 50여개의 영업점 및 국내외 20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1일 전자상거래 물품 처리량은 200만 건에 달한다. 현재 알리바바그룹, eBay, Paypal, Amazon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 외에도 이용 고객만 10만 개 사 이상에 달한다²⁸⁾.

4PX는 '제4자 물류'를 의미하는 'Fourth Party Express'를 기업명으로 삼을 만큼²⁹⁾, 국제전자상거래 전체 공급사슬에 있어 다수의 물류공급자와 연계하여 약 50여 종의 다양한 물류 서비스 상품뿐만 아니라 에 이르는 IT, 컨설팅 등 다양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중국 및 국외의 전용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DHL, TNT 등과 연계한 특송 서비스, 중국우정국, 싱가포르포스트, 홍콩포스트 등과 연계한 EMS 서비스, 해외직구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4PX는 국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체코, 스페인, 홍콩, 일본, 호주에 13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며 구매관리, 주문관리, 재고관리 및 보관, 물류배송 관리의 일체화된 'FB4(订单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B4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제 EMS 및 기타 일괄 특송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상의 우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례로, 계란 부화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 업체의 경우, 2KG 정도의 부화기 상품을 중국에서 호주로 보낼 경우 EMS로 242.5위안, 시간적으로 5~7일 걸렸으나, FB4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66위안(최초 국제운송비[해운] 65위안, 현지 배송비 94위안, 운영비 7위안)으로 EMS 대비 32%의 절감되었다³⁰⁾.

26) 物流CTO, "菜鸟、京东、顺丰、圆通等加速出海, 究竟谁能成为中国的FedEx?"(<http://www.cn156.com/article-93273-1.html>)

27) 搜狐, http://www.sohu.com/a/245069727_343156, 「助力“一带一路”, 中欧班列“圆通号”首发」(검색일: 2018.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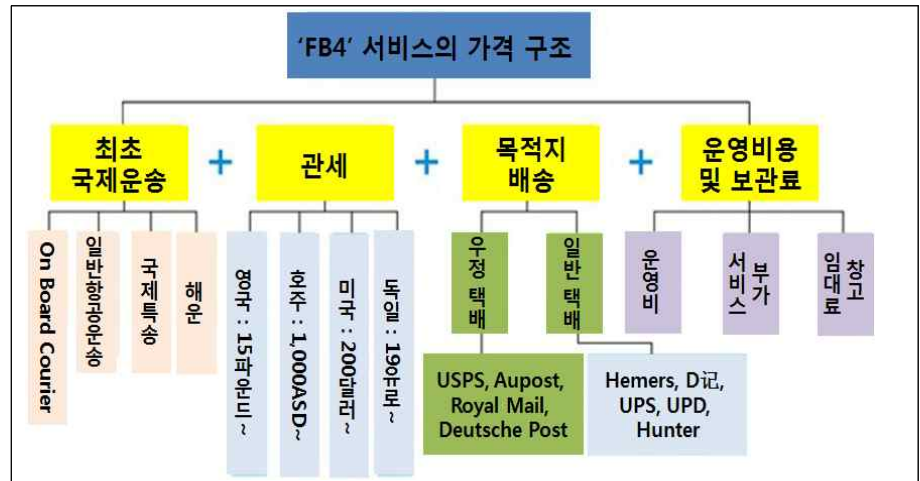
28) 4PX 홈페이지(<http://express.4px.com>)

29) 제4자 물류는 전체적인 공급사슬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사슬 통합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자가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고객 회사의 거점 대 거점 형식의 연결방식으로 공급사슬을 통제 및 관리함. 오문갑, 「중국 제4자 물류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 제4자 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4호, 2013. 12., pp.313~339.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그림 5] 4PX의 ‘FB4’ 서비스 가격 구조



자료 : 4PX 홈페이지(<http://express.4px.com>)

3) 전자상거래 화물열차도 탄생 : 파양물류의 ‘후어우통’

2002년 중국선전에서 설립된 파양물류(NEP Logistics, 大洋物流)는 철도, 해운, 항공, 도로운송을 국내외 복합연계운송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제3자 물류기업이다. 특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복합연계운송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광저우, 선전,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항만에서 연해운송을 통해 다롄 혹은 잉커우를 통해 러시아로 가는 복합연계운송 노선, 중국 항만에서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항을 통해 TSR과 연계하는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광저우, 샤먼, 상하이, 칭다오, 톈진, 다롄에서 러시아 주요 도시와 연계하는 열차노선을 운영하고 있다³¹⁾.

2018년 3월, 파양물류는 중국철도 상하이그룹유한공사(上海局集团有限公司, 기존의 상하이철도국)와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CRCT)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러시아 간 국제전자상거래 운송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여 ‘후어우통(沪欧通)’으로 명명된 상하이-유럽 간 국제전자상거래 전용 화물컨테이너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동 열차는 중국·몽골의 국경도시인 얼렌하오터(二连浩特)를 경유하여 모스크바까지 운행된다. ‘후어우통’ 열차는 향후 상하이에서 러시아, 중앙아, 유럽 등지로 주 1회 운행될 예정이며, 총 운행 시간은 약 12시간 소요된다. ‘후어우통’ 열차는 운행 중에 온라인 주문을 접수하여 열차 도착 후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움직이는 국제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 모델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으며, 화물 보관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³²⁾.

30) 4PX 홈페이지(<http://express.4px.com>)

31) **따양물류 홈페이지**(<http://www.nep-logistics.net/cn/index.php>)

32) 经济网-中国经济周刊, “沪欧通上海发车, 建起移动的‘跨境电商海外仓’”(http://www.ceweekly.cn/2018/0416/222857.shtml)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5 시사점

전술한바 있지만 중국은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직구에 대한 과세 등 규제강화 조치를 또 유예하기로 했다. 저장성의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 적용해온 해외직구 규제 강화 유예 조치를 2019년부터는 베이징, 선양, 난징, 우한, 시안, 샤먼 등 22개 도시에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당초 해외직구 유예시한이 2018년 말에 끝나면 2019년 1월부터 중국 내 모든 도시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수입화물 수준의 감독과 관세를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었다. 이에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등을 역직구해 온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호재다.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와 신모델 발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교역과 신동력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와 취업을 늘리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한다”³³⁾.

그리고 중국은 4PX Express(递四方速递)처럼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해외 주요 물류업체와의 제휴되어 있고, 또 알리바바그룹, eBay, Paypal, Amazon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 외에도 이용 고객만 10만 개 사 이상으로 중국 기업들의 국제물류 네트워크도 더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성장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을 더욱 육성하고 제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국가 중점 대외전략인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채널로서 국제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많은 물류기업들도 동참하여 해외 운송 네트워크 및 해외의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도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짜드’ 갈등의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국제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대 중국 해외 직접판매는 동기대비 22.8% 증가, 해외 직접구매는 104.1% 증가했다³⁴⁾.

이러한 시장 성장 속에서도 우리나라 물류기업들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 혹은 제3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지정된 35개의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현지 보관 및 통관, 검사, 포장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협력 택배기업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

33) 조선일보, “중국, 해외직구 과세 유예조치 새해에도 연장”(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0143.html, 해외직구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제품의 1회 구매한도가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으로 상향, 연간 한도도 2만 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높아짐)

34) 통계청, 『2018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2018. 11., pp.16-22.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하는 원스톱서비스 기능이 갖춰져야 할 것이며, 많은 초기 건설 자본에 대한 공기업의 공동 투자나 사모펀드 등의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공표된 『전자상거래법』의 범위 정의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규범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그동안 한·중 간 ‘파이공’을 통한 핸드캐리 물량이 향후 투명한 물류채널도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한·중 정부 및 기업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카페리와 같은 새로운 운송방안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여객 이동이 많은 공항,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O2O 방식의 ‘쇼룸’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를 포함하여 중국의 세계 각지의 ‘해외창고’들과 협력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을 함께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ASEAN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국제전자상거래도 확대되면서,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eWTP 시범구(eHub)와 같은 동남아 지역에 해외 전자상거래 거점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중국의 사례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중국의 스마트물류가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및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스마트 물류’를 접목한 독자적인 물류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여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물류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세원 전문연구원·김형근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허젠중(何建中) 교통운수부 부부장, 중국 해운시장 전면적으로 개방 예정
- 자연자원부, 바다매립에 관한 2개의 기술 지침 발표
- 11개 연해지역 조직개편 방안 모두 통과
- 중국, 최초로 '레저어업 발전보고' 발표
- 산둥 해양산업협회 설립
- 중국 제35차 남극탐사활동 시작, 69항 과학탐사 작업 전개 예정
- 시진핑 주석 상하이 방문, 양산항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당부
- 제5차 APEC 블루경제포럼 개최

- 장쑤성 5번째 2억 톤 물동량 항만의 탄생
- 광저우항, 중산항(中山港) 52.51% 지분 인수 계획
- 와이까오차오(外高桥)조선소, 2+4척 호화 크루즈 건조 계약 체결
- ZPMC, 1-3분기 순이익 1.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01% 성장
- 해운업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GSBN(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 설립
- COSCO그룹, 10년 만기 50억 위안 채권 발행
- 1-3분기 중국 규모이상 항만물동량 99억 5,058만 톤, 동기대비 2.6% 증가

해운 · 항만 · 물류

- 10월까지 중·카자흐 물류단지 컨테이너 반출입 23만 TEU 돌파
- 컨테이너 스마트 검수, 렌원강항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다
- 올해 1-8월,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누적 운행 1만 회 돌파
- 초상국항만, 9,960만 위안에 라오닝 항·항 발전(港航发展) 49.9% 지분 인수 계획
- 초상국그룹(CMHI), 5개 전략 합작 파트너와 구매 계약 체결
- 칭다오항 2~6항목 위험물 컨테이너 수출입 업무 재개
- 안후이성 안칭항(安庆港) 컨테이너물동량 10만 TEU 돌파

해양 · 수산

- 내년 가을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달성 계획, 노르웨이 생산업체 큰 생산 생산 필요
- 인도의 200개 품종 제품의 대 중국 수출관세 감면 추진, 환다리새우 포함
- 제6차 '중국-아세안 국가 해양협력 포럼' 베이하이(北海)에서 개최
- 중국-태국, 해양공간계획 협력에 실질적 성과 획득
- 중국-캐나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정돈에 함께 대응
- 미국 농업부 : 2018~2019년도 중국의 대두 수입량, 900만 톤 감소 예측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허젠중(何建中) 교통운수부 부부장, 중국 해운시장 전면적으로 개방 예정

11월 7일, 허젠중(何建中) 교통운수부 부부장은 글로벌 무역 및 공급사슬 정상회의의 즉, 2018년 국제해운총회에서 40년 이래 중국 해운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역사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고, 중국은 이미 해운 대국이 되었지만 해운업 발전의 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교통강국 및 해운강국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해운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국제해운 업무 분야의 외자 주식 비중 제한을 취소하고, 국제 해운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해운관리제도 혁신 정책을 전국으로 보급하여, 현대 해운서비스업과 크루즈업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강·해(江海) 복합운송 및 강·해 직항운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와 국외 함께 경영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혁신할 것이다.

또한, 통상구 환경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국제무역 '단일창구(单一窗口)'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상구 감독 관리 절차와 검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통관효율을 향상시키고, 해운 편리화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다. 효과적인 조치 이용을 통해 수출입 부분의 원가를 낮추고, 행정 사업성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며, 경영서비스요금을 규범화하여,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동시에 '광관부(放管服,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심사 비준 사항을 간소화하여, '선조후증(先照后证,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 '다증합일(多证合一, 사업자등록증, 조직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 사회보장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박 전자증서의 응용을 보급시킬 것이다.

동시에 녹색해운의 발전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안전, 편리, 고효율, 녹색,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운체계를 구축하여, 운송구조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중화물 운송방식은 도로에서 철도 및 수로로 전환하며 강·해직항, 해·철 복합운송 등 운송방식을 발전시킨다. 항만배치를 개선하여 해운·항만 자원통합을 추진하고, 항만의 집소운(集疏运) 철도·도로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해상운송 및 항만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오염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선박배출통제구역을 조속히 건설하며, 친환경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 자동화 및 선박 응용을 장려한다. 스마트 해운 안전감독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해운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해상교통 안전법」, 「해상법」, 「국제해운조례」의 수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선진 수준 및 관리 사례에 따라 해운과 학기술 및 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터넷+' 해운업의 새로운 업태를 지지하며, 현대 첨단 해운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운·항만업체 '해외진출'을 장려하며, 국제화 산업배치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운업 발전 추세 파악을 통해 해운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선박량 구조 조정을 통해 현대화 선대를 건설할 것이다. 해운·항만 업체는 상·하류 산업 간 융합발전을 지지하고,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 국제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중대한 위험 예방 및 이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상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就是金山银山, 맑고 깨끗한 물과 푸르른 산은 매우 귀중한 자산' 는 발전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IMO의 오염가스 배출 감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환경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 출처 : 中国证券网, 2018. 11. 7.>

2 자연자원부, 바다매립에 관한 2개의 기술지침 발표

「국무원 연해습지보호 강화,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에 관한 통지」를 이행하여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바다매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는 「바다매립 프로젝트 생태평가 기술지침(시행)」(이하 「평가지침」으로 약칭) 및 「바다매립 프로젝트 생태보호 복원방안 편성 기술지침(시행)」(이하 「편성지침」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평가지침」은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바다매립 프로젝트가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태적 가치의 피해를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요 생태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생태복원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바다매립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평가지침」은 평가단위, 평가범위 및 평가내용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집중되거나 인접된 바다매립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평가를 실시하고, 단락 하나만의 바다매립 프로젝트는 독자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바다매립 프로젝트에 대한 생태평가 내용은 주요 바다매립 프로젝트 생태영향 평가, 생태손해 평가, 해양생태환경영향에 대한 종합평가 및 생태복원 대책을 포함한다.

바다매립 프로젝트의 생태보호 복원방안의 편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는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방안의 편성은 해역·도서의 보호관리, 국토공간계획,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해양보호복원 등의 법규, 정책조치, 기술규범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리고 전기(前期)의 해역이용 논증과 생태평가 등 기술 보고서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보호우선, 자연적 회복, 통합적 고려, 합리적 구조배치, 효과성 중시, 실제상황에 부합' 등 편성원칙을 제시했다.

「편성지침」은 바다매립 프로젝트 생태보호 복원방안의 편성작업은 전기준비 단계, 목표분석 단계 및 방안편성 단계로 나누었다. 방안편성 과정에서 바다매립의 현황 및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요 생태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생태보호 복원의 주안점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맞춤형 생태보호 복원 목표를 수립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보호 복원의 주안점에 따라 맞춤형 추적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효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를 편성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11. 5.>

3 11개 연해지역 조직개편 방안 모두 통과

최근,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시의 조직개편 방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연해 11개 지역의 조직개편 방안이 모두 통과되었으며 전면적인 실시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해양의 우위조건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위해, 산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는 각자 자연자원청과 해양국을 설립하여, 더 이상 기존 산둥성 해양어업청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및 기존 광시자치구 해양·어업청을 더 이상 존치시키지 않는다.

산둥성 해양국은 산둥성 자연자원청의 산하 기구로서 산둥성의 해양사업 발전과 해양강성 건설 등 중대한 전략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주로 해양발전전략, 발전계획과 해양산업정책의 연구와 제정을 담당하며, 관련 기관과 함께 해양경제발전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또한, 해역이용과 도서의 보호·이용·관리를 담당하며, 해양경제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 대외협력 등도 관리한다. 산둥성 자연자원청과 해양국은 10월 27일에 현판식이 열렸다.

또한, 산둥성 위원회가 해양업무에 대한 지도와 통합 조정을 강화하고 해양 고품질 발전전략 요지로 구축하기 위해 산둥성은 성위원회 산하의 해양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해양분야 중대사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 종합 조정, 전체적 추진과 이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발전위원회의 사무실은 자연자원청에 설치한다.

광시자치구의 해양국도 자기 지역의 해양발전 특징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미래의 발전요구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다. 자치구 자연자원청이 해양국을 관리한다. 해양국은 해양관리 등의 직책을 이행함으로써 광시성의 해양 우위조건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해양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켜서 해양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광시 해양국은 11월 12일에 현판식이 열렸다.

푸젠성은 자연자원청을 설립하여 해양경제발전과 어업관리의 관련 직책을 통합하는 기반하에 성 해양·어업국을 설립했으며, 기존의 푸젠성 해양·어업청을 더 이상 존치시키지 않는다. 푸젠성 해양·어업국의 주요 직책은 중앙정부의 해양경제와 어업발전의 관련 정책과 법률의 실시, 푸젠성 해양경제발전의 추진과 통합조정 등 직책, 그리고 해양경제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와 관련 정보 발표 등이 있다. 또한, 다른 관련 기관과 함께 해양경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조정 등에 관한 건의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푸젠성 어업어항의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어업의 생산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월 26일에 푸젠성 해양어업국의 현판식이 열렸다.

하이난성(海南省)은 전국 지역 조직개편 방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지역이다. 하이난성은 자연자원·계획청을 설립했고, 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추가했으며, 더 이상 하이난성 해양·어업청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9월 29일, 하이난 자연자원·계획청과 해양국의 현판식을 열었다.

허베이(河北), 저장(浙江)과 광둥(广东)의 3개 지역은 각자 성 자연자원청을 설립했고, 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추가했다. 더 이상 기존의 저장성 해양·어업국과 기존의 광둥성 해양·어업청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10월 24일, 저장성 해양자원청과 해양국의 현판식이 열렸다. 10월 25일, 광둥성 해양자원청과 해양국의 현판식이 열렸다.

텐진시와 상하이시는 계획·자연자원국을 설립하여 시정부의 구성기관으로 한다. 텐진시는 시 해양국의 명칭을 보류했으며, 상하이시는 수무국(水务局, 수자원 관리국)에 해양국의 명칭을 추가했다.

그 외에는 랴오닝성과 장쑤성은 각자 자연자원청을 설립했고, 더 이상 기존의 랴오닝성 해양·어업청과 기존의 장쑤성 해양·어업국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지방의 조직개혁은 2019년 3월 전에 모두 끝날 것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11. 14.>

4 10월까지 중·카자흐 물류기지 컨테이너 반출입 23만 TEU 돌파

올해 들어 중·카자흐스탄(中哈) 물류협력기지(이하 '중·카 물류기지'로 약칭)는 유라시아 탈국경 화물열차에 힘입어 동서 쌍방향 운송의 균형을 촉진하고, 밀의 해외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업무에 대해 상용화 운영을 실현했다. 1~10월 간 중·카 물류기지의 화물 반출입량은 총 36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3만 5천 TEU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4년여 간의 발전을 거쳐 중·카 물류기지는 이미 '일대일로'와 '광명대로'의 협력시범지역이 되어 중국-유럽 열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추진했고, 기지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국경 간 화물운송열차는 중아시아 5개국 200여개의 역을 포괄한다. 금년 이래 밀의 해외업무는 상용화 운영에 접어들었고 이미 밀 무역을 통해 자금사슬의 금융물류모델을 형성했다. 밀의 동쪽 이동은 중아시아국가에 정제된 컨테이너를 돌아오게 해 물류비용을 낮췄고 동서 양방향 모두의 '컨테이너 full 이동'을 실현했다. 코스코의 동남아-렌윈강-중아시아 실현이 성공하여, 중아시아 밀이 동남아의 전 세계 물류체인을 통해 나아가게 되었다.

취쉐메이(左学梅) 렌윈강 중·카자흐스탄 국제물류유한공사 부총경리는 카자흐스탄 밀은 이미 상용화 운영을 형성했고, 콜드체인 물류가 금년에 시작되고 최초의 일본-중국-유럽 정기열차 역시 이미 개통되어 그 다음은 아연주의의 동쪽 이동업무가 시작될 것이라 소개했다.

동시에 금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쾌속철도운송은 렌윈강에서 타슈켄트까지 '포인트 투 포인트' 정기열차와 중국철도의 결제플랫폼이 중·카 물류기지로 운영이 이관되어 현재 이미 중국철도와의 결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자료 : 中国一带一路网, 2018. 11. 8.>

5 중국, 최초로 「레저어업 발전보고」 발표

2018년 8월, 샤먼(厦门)에서 중국농업농촌부 어정관리국에서 주도하고 전국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초로 편성한 「중국 레저어업 발전보고」(이하 「보고」로 약칭)가 발표됐다. 「보고」에 의하면 2017년 중국 전국 레저어업 생산액은 708억 4,200만 위안으로 어업경제 총생산액의 2.86% 차지하고 어업 제3산업 생산액의 10.45%를 차지한다. 향후 레저어업은 거대한 시장 전망과 아울러 양호한 발전 기회가 있다.

2018 제11회 중국(샤먼)국제레저어업박람회(「샤먼 레저어업전시회」로 약칭)가 샤먼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중국레저어업 정상포럼은 11월 8일에 개최되었다. 포럼에서 「중국 레저어업 발전보고」 및 중국레저어업지표가 발표되었다.

레저어업은 레저농업의 일부로서 중국 현대어업의 5대 산업 중 하나이다. 현재 현대어업의 중요산업으로 발전했다. 「보고」에 의하면 레저 활동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중국 현대어업의 산업으로서 발전해온 기간은 길지 않다. 레저어업의 발전은 40년 정도로서 대략 3단계, 즉 초기, 쾌속 발전기 및 규범화 혁신기로 나눌 수 있다.

1970~1980년대, 중국 레저어업은 발전이 시작되었고, 2001년에 발표된 「중국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서 최초로 「레저어업」이라는 개념을 본격 발표했다. 즉, 레저어업의 새로운 발전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6년에 발표된 「중국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레저어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확정했다.

제2단계는 쾌속 발전기이다. 2011년에 중국 농업부에서 발표된 「중국 어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최초로 레저어업을 어업발전계획에 포함시켰고, 중국 현대어업의 5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일련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레저어업은 더욱 발전됐다. 2015년까지 중국 레저어업 생산액은 489억 2,700만 위안으로 2003년보다 804.21% 증가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제3단계는 규범화 혁신기이다. 2016년에 농업부는 최초로 사면에서 레저어업을 주제로 하는 전국 레저어업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서 계획하고 중국 수산학회, 중국 레저낚시협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중국 전국 레저어업의 대표적인 성·시의 대표, 수족관, 레저 어촌, 레저어업 시범기지, 낚시 기업, 수족 기업, 투자회사, 관광 온라인 플랫폼 등 유명한 업계의 전문가, 관련 대학, 연구기관, 업계 언론인 등 230여 명을 초청했다. '레저어업 및 농촌진흥'을 주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레저어업의 대표적인 사례와 관심 높은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교류가 있었다.

<출처 : 中国新闻网, 2018. 11. 8.>

6 컨테이너 스마트 검수, 뢰원강항을 더욱 '똑똑하게' 만든다

인공지능이 현실이 되고 있다. 뢰원강항은 스마트항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11월 2일 오전 10시, 뢰원강 컨테이너 부두 26호 선석에서 정박하던 '창룡12' 컨테이너 정기선이 선적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곳에서 그 어떤 전통적인 검수광경도 볼 수 없었다. 컨테이너 스마트 검수시스템이 인력을 대체하여 더욱 섬세한 검수작업을 하며 작업효율을 300%까지 상승시킨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뢰원강 와이런 선박검수회사가 IT기업과 손잡고 자체 연구개발한 혁신 프로그램인 컨테이너 검수시스템은 '뢰원강은 해역 조석변화가 크고, 선박적재 변화가 크고, 관련된 부두공사의 선적 하역생산업무'라는 3대 복잡한 요소를 극복하고 '컨테이너 번호, 선상위치, 차량번호' 3대 스마트 검수핵심요소의 인식률 97%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뢰원강 컨테이너 스마트 검수시스템의 정확성, 신뢰성, 안정성은 전국 항만에서도 손꼽힌다.

최근 몇 년 '인터넷+'는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스마트 항만건설의 불꽃이 전국에서 앞 다투어 일고 있다. 뢰원강 검수공사는 항만 컨테이너 수송량의 상승에 따라 공정성과 서비스성을 갖춘 검수공사로서 적극적으로 검수작업방식의 과학적 혁신,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감지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전문인력 노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인력개선, 안전보장 역시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선주, 화주,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관의 업무를 돕고, 출입국 통관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뢰원강 검수공사는 '인터넷+검수' 과학혁신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IT기업과 손잡고 컨테이너 스마트검수시스템 혁신을 하여 '사업실시, 난제극복, 과학기술혁신, 작업절차, 경제 효익, 사회이익, 안전보장'등 방면에 착수하여 컨테이너 검수과정에 있어 절차개선,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여 부두 네트워크 설비의 난관을 극복하고 신뢰성을 더했다. 전국에서 출산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컨테이너 숫자와 비슷하여 스마트 인식오판이 쉽다는 난제를 극복하고 검수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2016년 2월 16일부터 시작 된 1기 건설이 2017년 7월 17일 완공됐다. 2018년 8월 18일 2기 공정이 완공되어 뢰원강 스마트검수정보센터가 건설되어 2기에 걸쳐 PSA 컨테이너 부두크레인에 9대의 스마트 검수설비가 장착됐다.

스마트검수는 전통적 인력의 검수방식에 기초하여 그 핵심인 컨테이너번호 대조, 컨테이너번호 입력, 컨테이너 외관과 파손 검사, 선적위치 확인의 과정을 스마트화의 3개 모듈 즉 정보수집모듈, 시그널전환모듈, 검사모듈로 정보의 수집, 저장, 전송을 실현했다. 스마트검수시스템은 컨테이너의 선적 하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조화가 가능하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렌윈강 검수공사 스마트검수시스템은 항만부두 컨테이너 선적하역생산시스템과 융합하여 인식한 컨테이너번호가 부두 생산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고, 컨테이너 트럭에 야적장 번호 정보를 제공하여 검수의 연장서비스로 부두공사 항만생산 업무에 역할을 다할 것이다.

스마트검수시스템의 구축은 스마트항만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렌윈강 과학기술검수의 브랜드를 구축시켜 전통적 인력검수에 변혁을 가져왔다.

기존 1명의 검수원이 한 줄의 작업라인을 담당했다면 동시에 세 줄의 작업라인의 검수가 가능하게 되어 검수작업의 종합효율이 향상됐다. 검수인원은 부두현장에서 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블루컬러'에서 '화이트컬러'가 되었다.

스마트검수의 정확도가 높고 종합효율이 높고 인력 안전성도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선사, 화주, 항만 모두에게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관속도를 높였다. 또한 렌윈강 컨테이너 운송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港口圈, 2018. 11. 5.>

7 올해 1~8월,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누적 운행 1만 회 돌파

리우샤오밍(刘小明) 중국교통운수부 부부장은 “금년 8월 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누적 운행 횟수가 1만 회를 초과하였으며, 중국 48개 도시를 지나 유럽 14개 국가, 43개 도시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는 고정된 편수와 노선으로 운행되며, 중국과 유럽 및 ‘일대일로(一帶一路)’연선국가 및 지역을 왕래하는 컨테이너 국제철도 복합운송 열차이다. 이날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 박람회 연관 포럼인 ‘2018 글로벌 무역 및 국제물류 고위층 포럼’에서 리우샤오밍은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는 이미 아시아-유럽무역의 새로운 구조의 효과적 운송수단이 되었으며, 중국 주도의 평화협력과 개방포용, 상호학습과 상호이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끊임없는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이미 18개의 양자 및 다자 정부 간 국제무역 운송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운송 편리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적, 서비스 및 전략적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최적화, 운영 효율성 제고, 교류 협력의 촉진, 국제무역의 번영과 민생복지 서비스 등 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리우샤오밍은 중국은 물류영역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개방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일련의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조치들을 실행하는 등 물류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물류산업 발전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

리우샤오밍은 또한 ‘12·5’ 이후 중국은 물류허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80여 개의 화물운송 허브를 투자, 건설하였으며, 상하이, 베이징, Ningbo, 선전, 정저우(郑州), 우한(武汉) 등을 대표로 하는 국제적인 국가급 교통허브와 물류 노드를 통해 지역발전,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원활한 국제무역 촉진 등의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전체 중국의 총 물동량은 479억 톤을 달성했으며 다년간 전 세계 최대의 물류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선진 운송방식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녹색배송 등 대표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물류 조직화와 절감 수준 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여 물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사물인터넷(物联网), 빅데이터, AI 등 현대 정보기술과 물류 운송의 융합을 통해 중국물류의 새로운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형태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전환과 높은 수준의 발전을 선도하였다고 리우샤오밍은 말했다.

리우샤오밍은 향후 중국의 물류산업은 전면적인 개방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역외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블록체인 등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우수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안전한 녹색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물류 전체 프로세스의 녹색화, 저탄소화 수준을 높여 녹색물류를 통한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港口圈, 2018. 11. 14.>

8 초상국항만, 9,960만 위안에 랴오닝 항·항발전(港航发展) 49.9% 지분 인수 계획

최근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동시에 간접 지배주주 지분구조 변경 계획을 발표하였다. 랴오닝성(辽宁省)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다롄시 국자위, 잉커우시 국자위, 랴오닝 동북아 항만·항운발전유한공사(이하 항·항발전<港航发展>) 및 초상국(辽阳)항만발전유한공사는 최근 '랴오닝 동북아 항·항 발전 유한공사의 증자협의' (이하 '증자협의') 를 체결했다. 초상국항만은 항·항발전의 신규 등록자본인 99,600,798.40위안을 현금으로 인수한다. 이번 증자 이전 항·항발전 등록자본은 1억 위안이며, 랴오닝성 국자위가 항·항발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유상 증자 후, 항·항발전의 등록자본은 199,600,798.40위안으로 늘어나게 되며, 랴오닝성 국자위는 항·항발전 지분의 50.1%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증자는 '증자협의'에서 약속한 관련 인도 조건이 만족되어야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항발전의 지배구조 변경 후에도 다롄항과 잉커우항의 지배주주는 여전히 다롄항 그룹과 잉커우항 그룹으로서 실제 지배주주는 랴오닝성 국자위이다. 이번 변경은 회사의 주요 업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회사의 정상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상국(辽阳)항만은 '증자협의'에 서명한 '새얼굴'로, 2018년 5월 16일에 랴오닝성 다롄시 중산구에 등록되었으며, 등록자본금은 1억 위안으로 초상국그룹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이다.

<출처 : 港口圈, 2018. 11. 12.>

9 초상국그룹(CMHI), 5개 전략 합작 파트너와 구매 계약 체결

11월 6일, 초상국그룹(이하 'CMHI'으로 약칭)은 제1회 중국(상해)국제수입박람회에서 5개 전략 파트너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CMHI 부총경리, 리야동(李亚东) 초상해통(招商海通) 회장, 벨라루스그룹주재 수석대표, 후메(胡政) 중국-벨라루스공업원구개발주식유한회사 CEO 및 벨라루스공화국 농업부 장관 등 일행이 공동으로 계약식에 참석했다.

리야동 회장은 CMHI는 해운·항만 업무를 시작하며, 회사의 역사는 이미 백년이 넘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육상 공동 발전을 통해 호연호통(互联互通, 상호 연결)하는 해운·항만네트워크 및 육상 물류대통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20개 국가 및 지역 간의 53개 항만에서 투자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세계에서 최초로 수입상품을 중심으로 대형 국가급 전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회로서 중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무역 자유화 및 시장 개방을 지지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CMHI는 중국국제수입 박람회를 통해 여러 협력 파트너와 호혜적 발전을 꾀하고, win-win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지속적인 상업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역량으로 시대의 진보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CMHI 및 산하 자회사는 5개 기업과 전략적인 협력 및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CMHI는 벨라루스 농업 및 식품부와 전략적인 합작 협의를 체결, 홍콩 해통(海通)유한회사는 KONGSBERG선박전기회사와 구매 협의를 체결, 초상석 유무역은 시노펙 그룹(Sinopec Group)연료유 싱가포르지사와 구매 협의를 체결, CMHI(장쑤)은 KONGSBERG선박전기회사와 구매 협의를 체결, 난징진링(金陵)조선소는 MAN Energy Solutions와 구매 협의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CMHI의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더욱 완벽하게 하여, 자신의 종합적인 산업 우위를 발휘하여 국가 '일대일로' 건설에 전 방위 산업사슬을 융합하여 국가전략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동시에 CMHI는 지속적인 중앙기업의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서비스와 국가의 대외개방 전략의 실현, 국내·외 시장 및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합적인 우세를 적극 발휘하며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win-win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招商局集团, 2018. 11. 7.>

10 내년 가을,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달성 계획, 노르웨이 생산업체 큰 생선 생산 필요

주중국노르웨이 대사에 의하면,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3/4분기에 달성될 것이다. 더 깊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는 노르웨이 측이 큰 연어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중국 정부는 검사검역 절차를 간소시키고 통관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극심한 수출입 정책의 장벽을 극복한 노르웨이는 빨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해산물 수출의 통로로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Gustav Solvang 주중국노르웨이 대사는 “다음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될 계획이고 2019년 3/4분기에 자유무역협정이 거의 타결될 것이다.” 또한 “해산물 수출입 무관세 실현은 노르웨이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향후 더 많은 품질과 좋은 해산물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에 노르웨이는 중국으로 15만 6천 톤의 연어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시장의 65%를 차지한다. 중국 구매자들은 큰 제품(6~7kg)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연어는 주요 중, 소형 제품이다. “노르웨이는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 생산업체들은 큰 생선을 양식해야 중국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고기의 색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상하이 가공기업 Fjord Food의 임직원 Joseph Xu가 말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연어의 원산지에 대해 갈수록 관심이 있다. 예전에 많은 제품들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 내륙 각 도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중국 내륙 도시로 연어를 운송하는 원가를 많이 낮춰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Ocean Supreme회사는 대서양 연어비중을 6kg 이상 높여 아시아 시장의 수요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큰 규모의 연어 수요 증가율은 세계 생산량의 증가율을 초과했다. 큰 규격 연어의 전 세계 수요량은 연간 16만 톤이다.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은 240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많은 생산업체들은 여전히 엄격한 정부 통제로 제품 공급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없다.” Botholf Stolt-Nielsen CEO는 “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온라인 실크로드'와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동향
- ▶ 동향 & 뉴스

연어 가격은 틀림없이 더 높을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기 색깔이 더 빨간 연어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은 빨간 색깔이 질을수록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칭다오에서 수입되는 냉동해산물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중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제품이 많이 증가했다.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통관 검사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칭다오 세관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해산물의 샘플 검사 확률이 더 낮고 리스크가 높은 제품의 샘플 검사 확률이 더 높다. 새로운 품종의 수입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는 엄격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검역의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통관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다. 올해 4월에 중국의 여러 세관검사 부서의 부서가 통합·개편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세관총서의 관련 부서와 국가품질감독국 및 검사검역국이 합병을 시작해서 내년에야 통합이 완료될 것이다. 통합 끝난 후 밟아야 할 통관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출처 : UCN国际海产资讯, 2018. 11. 7.>

11 인도의 200개 품종 제품의 대 중국 수출관세 감면 추진, 흰다리새우 포함

인도 「The Economic Times」 10월 30일의 보도에 의하면 새우, 면실 등 약 200 종의 인도제품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따라 중국에서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 상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페루, 파키스탄, 호주, 한국 및 아세안 나라들의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한 단계 더 감면시켰다. 이중 일부 제품은 인도의 대 중국 수출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상무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도가 중국의 관세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는 냉동 새우, 싸라기, 신선 포도, 아연, 산화알루미늄 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벤젠 등 탄화수소가 포함돼 있다. 인도 상무부 관계자는 인도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 중국의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은 현재 인도와 중국 간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무역협정이다. 한국, 방글라데시, 라우스, 스리랑카 등의 국가도 이 협정의 구성원이다.

인도 상무부의 분석에 의하면, 인도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중국에 수출할 때 6%의 관세를 내야 하며,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하면 10%의 특혜를 주고 있어 중국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 중 이 제품의 최고 관세율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 중국 수출의 나프타 관세는 제로이고, 호주는 2.4%이며 한국은 4.8%이다.

냉동 새우와 새우살 등 인도의 주요 수출제품은 다른 국가들의 관세 감면 혜택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주 낮다. 제로관세의 혜택을 받는 아세안 국가들의 냉동새우는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6%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제로관세 때문에 중국 산화알루미늄 시장에서 41%를 점유하고 있지만,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인도는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8%밖에 안 된다.

인도는 흰다리새우의 주요 생산국가로서 오랫동안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주요 국경무역의 경로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의 흰다리새우류 제품이 중국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중국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중국시장에 있는 에콰도르산 흰다리새우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冻品攻略, 2018. 11. 5.>